



# 第 79 回

## 9月 8日, 成功

- ... 본회가 주최한 第79...
- ... 회 發明教室이 지난...
- ... 9월 8일 발명장려관...
-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 每月 둘째 토요일 午...
- ... 後 1時에 開催되는...
- ...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 ... 1백여명이 參席하여...
- ... 盛況을 이루었다. 이...
- ... 날 發明教室에서는...
- ... 삼원API 金文煥 사장...

# 자동차 자동주행장치發明家

## 삼원 API 金 煥 사장

'87 뉴른베르그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 「자동차 자동주행장치」를 출품하여 영예의 金賞을 수상한데 이어 '88 뉴욕국제 발명품 전시회에서도 金賞을 수상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삼원 API 金文煥 사장은 지칠줄 모르는 끊임없는 연구심으로 상품개발에 전력투구, 현재까지 49종의 시제품을 제작시험하는 등 대단한 열성의 소유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콜택시 창업자이자, 최초로 렌트카회사를 설립하는 등 교통업계의 개척자인 金사장은 원래 전자나 발명과는 생소한 법률을

전공했다.

따라서, 교통업계에 몸담고 있기 했으나, 자동차 자동주행장치를 發明하기까지는 남모르는 고생과 역경이 따랐다.

아무리 자동차의 구조를 잘 안다해도 전문가가 아닌 그는 할 수 없이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처음엔 6개월의 기간과 막대한 돈을 들여 대학교수에게 부탁했으나, 성공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3개월의 기간을 설정하고 개인에게 용역을 주었으나, 이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金 사장은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뛰어들기로 했다. 그는 2년 동안의 독자적인 연

구와 노력으로 마침내, 「자동차 자동주행 장치」를 發明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처음 發明에 성공하여 물품을 만들었을 때는 엉성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진 못했다.

따라서 金사장은 적지않은 실망을 했지만 걸모양은 수려하지 못해도 發明으로서 가치는 있다고 확신을 하고 뉴른베르그 국제발명품 전시회에 자신의 發明품을 출품했다.

결과는 영예의 金賞.

金사장은 이에 힘입어 發明품을 개선하여 '88 뉴욕국제발명품 전시회에 출품, 여기서도 金賞을 수상하였다.

『자동차의 가속페달은 스피드 스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

# 發明教室

## 事例 등 發表

- 의 成功事例發表에 ○
- 이어 金寶衡 本會 조 ○
- 사부장의 「발명의 창 ○
- 출과 사업」에 대한 ○
- 강의와 洪載日 解理 ○
- 토의 「産業財産權制 ○
- 度」에 대한 강의와 ○
- 토론이 있었다. 發明 ○
- 家의 成功事例를 간 ○
- 주려 紹介한다. ○
- 〈尹榮洵 記〉 ○



습니다. 즉, 가속, 감속, 정속의 역할을 하고있는 것은 TV나 라디오의 볼륨스위치가 고음, 저음, 정음을 갖고있는 것과 동일하나, 볼륨스위치는 음을 조정할 다음 스위치로부터 손을 떼어도 일정한 음을 유지하지만 가속페달은 주행한 다음 일정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죠. 제 發明品은 이 악셀페달의 고정 조작시간을 자동화한 것입니다.』

金사장의 發明品은 연료분사장치의 트로트벨브 개폐를 단속하는 장치와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악셀페달을 밟아서 트로트벨브를 열어준 다음 악셀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계속하여 열어준 상태를 유지하게하여 자동주행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며, 감속할 때는 악셀페달의 측면에 스위치를

설치하여 감속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또한, 기어변속 동작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클러치 조작시 자동으로 감속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었으며 자동주행중 브레이크를 조작하면 또한 자동으로 감속할 수 있는 스위치도 설치되었다.

『경력이란 것 무시못합니다. 처음 사람들이 내 경력을 보더니 내 發明品을 전혀 신뢰하지 않더군요. 무명세. 정말 특특이 당했습니다.』

金사장은 자신의 무명세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로서 인정받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찾아간 곳은 한국과학기술원.

金사장은 그곳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다시 發明品의 개발에 힘써 생산을 개시했다.

그러나, 자동차는 인간의 생

명을 다루는 것이기에 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99%의 성공률이었지만, 金사장은 그간 3차개발에 걸쳐 생산한 차를 폐기시키고 4차개발에 들어갔다.

이런 완벽한 제품에 대한 끈기와 신념과 집념으로 그는 드디어 100% 성공적인 개발품을 생산해 냈다.

현재, 독일 엔겔만회사와 연간 10만대 계약을 협의중에 있는 金사장은 發明家에게 있어 자기도취는 금물이며 시원치 않는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마지막으로 동료 發明家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우리 發明家들은 아무도 가지않는 길과 아무도 하지않는 일을 합니다. 부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따르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신념을 갖고 發明에 임하십시오.』 <♣>